

## 한국소비자원 전국 단위의 광역 조직망 구축

#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선도적인 협업모델 개발 및 확산

한국소비자원은 부산·광주·대전·대구·강원에 이어 인천과 울산에 신규 지원을 개설했다. 지난 9월 열린 신규 지원 개소식에는 시 관계자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천·울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역밀착형 소비자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클\_이태형 대리(피해구제국 피해구제총괄팀)

### 전국단위의 소비자행정 조직망 구축

한국소비자원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해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등 전국 5개 지역에 지방지원을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소비자 행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업무 전문기관인 소비자원의 지방 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비자원은 우리 국민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하고 우수한 소비자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올해 인천과 울산에 지방지원을 신규로 개설했다. 이로써 소비자원은 충북 본원을 필두로 서울·경기·부산(경남)·광



주(전라) · 대전(충청) · 대구(경북) · 강원 · 인천 · 울산 ·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광역 조직망을 구축했다.

### 인천, 울산지원 개소식 개최

9월 4일 인천지원 개소식에는 인천 남구갑 홍일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일자리경제국장 및 인천 소재 소비자단체장 등이 참석해 향후 인천지역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같은 달 18일 울산지원 개소식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경남도청 관계자, 울산 · 경남지역 소비자단체장,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울산 및 경남지역 소비자의 역량 강화와 권익 증진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작은 소비자원을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원의 9개 지방지원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소비자 거래 · 안전을 위한 지역밀착형 시장 감시 활동, 소비자 정보제공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소비자원의 임무도 함께 수행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목표로 ‘아래로부터의’, ‘직접’, ‘일상의’, ‘과정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현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민이 직접 지역 소비자 정책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글\_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구갑, 자유한국당)

앞으로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여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20대 국회 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인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보람되게 느끼는 의정 성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 건립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정감사와 현안질의를 통해 인천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인천지원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인천지원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인천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고차매매 관련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한 빠른 처리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소비자원 인천지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인천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소비자 보호 활동에 가장 모범적인 기관이 되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개소식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